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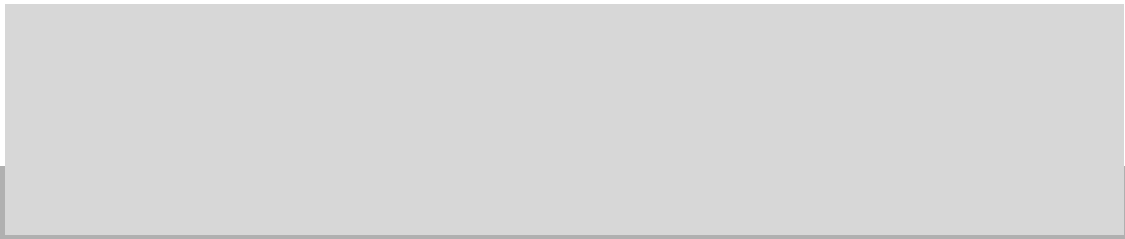
2018.03.30.

CNI세미나 2018-021

2018년 축산환경공존 연구회  
제2차 축산정책포럼 자료집

CNI세미나 2018-021 [2018.03.30.금, 14:00~17:00]

## 축산물 유통과 소비의 변화로부터 시작



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2차 축산정책포럼 개최 계획(안) -

- 연구회 :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회의명 : 제2차 축산정책포럼
- 회의목적 : 축산물 유통과 소비 변화 관련 주제 토론, 대안 도출 등
- 회의일시 : 2018.03.30. 금, 14:00~17:00
- 회의장소 : 홍성군 새홍성 교회(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44)
- 참석인원 : 총 30여명 내외
- 주관·주최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정책포럼, 충남연구원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준비총괄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강마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4:00	14:10	여는 말(prologue)	충남연구원&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14:10	14:20	제1차 축산정책포럼 논의 정리결과 발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 활동가
14:20	14:40	주제발표 1. 홍성군 축산물 유통 현황과 문제, 대안	홍성군청 박승주 팀장
14:40	15:00	주제발표 2. 축산문제(악취, 환경오염, 주민 갈등)를 통해서 본 축산물 유통과 소비의 개선 방향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조성미 의장
15:00	15:10	참고발제 : 학교급식 식재료 중 축산물 사용 현황 : 2016년 서산시 학교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
15:10	16:50	축산물 유통과 소비 정책대안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6:50	17:00	나가는 말(epilogue)	충남연구원&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주제발표 1.

---

### 홍성군 축산물 유통 현황과 문제, 대안

---

박승주 | 홍성군청 축산과 축산유통팀 팀장

---



# 홍성군 축산물 유통 현황과 문제, 대안

## ○ 전국 · 충남대비 홍성군 가축사육두수 및 가구수

축종	전국	충남	홍성군	전국대비	충남대비
한우	2,716,876 (89,879)	361,394 (14,360)	51,582 (2,047)	1.9% (2.3%)	14.3% (14.3%)
젖소	404,293 (5,354)	69,654 (1,171)	3,906 (66)	1.0% (1.2%)	5.6% (5.6%)
돼지	10,366,779 (4,574)	2,291,593 (1,176)	517,879 (306)	5.0% (6.7%)	22.6% (26.0%)
닭	170,146,939 (5,700)	45,430,565 (2,933)	3,307,834 (415)	1.9% (13.9%)	7.3% (7.3%)

## ○ 축산물 공급현황

구 분	총 수요량 (2015년)	공급현황		자급율(%)
		국내산	수입산	
계	2,458	1,682	776	68.4
쇠 고 기	554	255	299	46.0
돼지고기	1,200	842	358	70.2
닭 고 기	704	585	119	83.1

※ 수입량 : '09년) 481천톤 → '14년) 696천톤 → '15년) 776천톤

## ○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 위 치 :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39
- 사업허가 : 2002. 4월
- 사 업 비 : 13,097백만원(기1,366 도200 융8,588 자2,943)
- 도축현황
  - 도축일일능력 : 소 150두 돼지1,500두
  - 가공일일능력 : 소 10두, 돼지 800두

## ○ 축산물공판장

- 사업허가 : 2015. 4월(경매실시:8월)
- 사 업 비 : 7,593백만원(국2,250 도270 군630 자4,443)
- 운영현황 : 5명(공판장장1, 경매사2, 사무2)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20명 등록 / 일일 경매능력 400두(한우)

## ○ 가축시장(홍성축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22-1
- 가축시장 구분 : 성우, 송아지
  - 성우 : 개장일 1, 4, 6, 9일(금,토,일,공휴일 미개장) 05:00시 개장
  - 송아지 : 매월 8일(휴일인 경우 10일) 10:00시 경매

## ○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현황

상호명	위치	대표	비고
홍성한우 홍동점	홍동면 홍장남로 660-3	주형로	식당,판매장
홍성축협 육가공센터	광천읍 문화로 423	이대영	가공장
홍성축협 하나로마트	홍성읍 내포로 139	이대영	판매장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	서부면 광리 4-4	이기웅	가공장
용봉산 한우프라자	홍북면 용봉산2길 10	민재기	식당,판매장
서부농협판매장	서부면 서부로 777	표경덕	판매장
구항농협판매장	구항면 구항길 65	황규진	식당,판매장

※ 지정도축장 : (주)홍주미트

## ○ 축산유통 관련법규

법 령	관련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가공업 및 판매업, 위생관련 업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이력 관리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 ○ 홍성한우 브랜드 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구분	농가(호)	사육두수(두)
브랜드 참여	1,192	40,481
홍성축협	934	29,619
브랜드사업단	258	10,862
미참여	855	11,101

## ○ 축산유통 관련업소 현황

구 분	업 소 수(개소)	비 고
축산물 판매장	193	
식육포장처리업소	21	

## ○ 홍성군 주요가축 일일 출하두수 및 관내 도축두수

축 종	홍성군 일일 출하두수 (개략적 추정치)	생산지별 홍주미트 도축두수		
		계	홍성	인근 시·군
소	55	100	30	70
돼지	2,200	2,300	1,200	1,100



## ○ 축산물 소비와 건강

- 소 : 마블링, 거세, 비정상적 지방침착, 지역별 암소, 숫소 선호
  - 근내 지방도 등급제(1993년 시행) : 국내 사육방식(공간 협소, 곡물사료) 최적화 제도
- 돼지 : 등지방 두께(항병력, 완충), 선호/비선호 부위
  - 80년대 후반 로스 : 삼겹살 + 찜채소 + 소주
- 닭(계란) : 유색란, 백색란, 뉴캐슬병
  - 세계 최저 출하 체중(육계 32일 1.7Kg, 살로만 치킨, 백 세미)
  - 계란 살모넬라균 : 국내발생, 비빔밥, 육회  
(미국 1990~2014년 25년간 살모넬라균 대량 감염 사건 53건, 총 2천630명 감염, 중감염 387명, 사망 5명)
- 오리 : 광천 오리 도축장(도압장) 추진 중 좌초
  - 1986. 3. 29 매일경제 보도 “오리가 물 아닌 산에서 자란다” 집단사육 성공한 충북 진천 “주원농산”
- 젓소(우유) : 1995년 한 방송사 뉴스에서 “고름우유” 보도
  - “우리는 고름우유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파스퇴르 유업 신문광고
  - \* “우리는 GMO농산물을 먹인 돼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젓소(홀스타인) 숫소, 미경산우는 육우

## 주제발표 2.

---

축산문제(악취, 환경오염, 주민 갈등)를  
통해서 본 축산물 유통과 소비의 개선 방향

---

조성미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

---



## 축산문제(악취, 환경오염, 주민 갈등)를 통해서 본 축산물 유통과 소비의 개선 방향

조성미(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지난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악취, 환경오염, 가축질병의 위협 등 현재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축산문제는 밀집사육 등 좋지 않은 생산과정의 문제점 중심으로 논의 되었고, 정부의 정책적 관점이나 언론보도 등 여론도 축산문제는 축사와 정화조 등 생산시설의 문제에 편중되어 왔다.

그간 논의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소비의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의 농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정기적으로 앉는 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악취와 환경오염, 질병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농장은 농민들도 원하는 바이고,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장의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도 ‘가격’의 힘이고, 농장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설사 개인이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농장에 의지가 있더라도 그렇게 생산되는 친환경 축산물의 국내 소비시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바꿔 말하면 시장(구매자)이 형성되면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이행이 보다 촉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지역에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잇는 윤리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비전문가이고, 일개 소비자에 불과한 개인의 생각을 두서없이 정리해 본 것이다. 지나치게 ‘당위’와 ‘선언적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변화라는 것은 어쩌면 현실에 불들리지 않는 상상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는 만큼 생각을

밀고 나가보기로 했다.

동물복지 농장, 친환경 축산에는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든다. 확실한 판로가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친환경 축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거의 전량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덕산 농협, 결성 성우농장의 경우)

책임생산-책임소비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이나 노력에 앞서 정부의 개입, 공적 자금의 투입,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적 협력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소비자들의 의식과 소비패턴, ‘합리적 소비’(제한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 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소비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윤리적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취약하다.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든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요는 늘고 있고,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점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 형성이 불투명한 친환경 축사,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우리 동네에서도 윤리적 소비가 가능할까? 가능하려면...

홍성군이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실험을 실행해 볼 수도 있겠다 싶다.

홍성군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홍성군이 운영(거버넌스)하는 학교급식센터는 군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에 사용되는 급식의 식재료 전부를 학교급식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별 입찰에 따른 학교 간 격차가 적고, 친환경 식재료와 지역 산 농산물 공급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17년 홍성군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군내 41개 학교에 총 83억3천4백여만원어치, 1,307톤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이 중에서 가공식품이 33억7천4백50여만원(40.5%) 농산물이 21억6천4백50여만원(26.0%), 축산물이 21억3천4백30여만원(25.6%) 수산물이 6억6천1백10여만원(7.9%) 순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장곡유기농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 농산물을 공급받고, 일반농산물과 전처리 농산물도 지역의 사회적 기업 (지랑, 구항면 내 현리 거북이마을)을 통해 공급받는다. 현재 친환경 식재료(축산물, 쌀 포함)의 사용비중은 초 중학교는 70%, 고등학교는 50%이며 지역 산 농산물의 비중은 홍성 산 50.5%, 충남 산 8.5%로 충남 산을 포함하면 59%가 지역 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에 건강한 지역 산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졌고, 4년차에 접어들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노력, 지역 산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생산-소비의 안정적인 선순환 고리는 계약재배, 즉 책임생산 책임 소비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많이 쓰이고,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구근류(감자, 양파, 당근) 일부 업체류 부터 계약재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의 특성 상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되어야하고, 생산물의 품의기준도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되는 전체 생산물을 선별 없이 전량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확 철에 한꺼번에 나오는 물량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기술, 비용의 문제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홍성군학교급식센터는 처음 출발부터 학교급식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급식(공공기관, 기업, 군부대 등 단체급식을 하는 모든 곳)으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서울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에 지역 산 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홍성군이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푸

드플랜 수립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다.

푸드플랜이 그동안의 로컬푸드와 6차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자급 자족의 먹을거리의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지속가능성과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큰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현재 학교급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의 대부분은 무항생제 계란, 닭고기 같은 가금류이다. 일부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사용되고 있지만 홍성산은 거의 없고, 다른 지역에서 사오는 것들이고 냉동유통 되다보니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사람들은 비싸면 맛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먹을거리는 비싸기는 한데 더 맛있는 것 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무항생제 사육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급식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비의 제한으로 작은 학교는 고기의 양과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친환경 축산물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로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의 공공급식 확대, 협동조합 등 소비자와의 연대, 농장-육가공 시설 투자를 통한 경험 제공,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윤리적 소비의 확산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다.

‘먹을거리’를 통해서 상상하는 마을 안에서의 자족적인 삶, 지속가능한 농업, 공동체의 회복...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 산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내 생산과 소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지역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엣그제 우리나라를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기후변화와 환경적 재앙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

푸드플랜 역시 이러한 환경적 재앙과 소득격차에 따른 먹을거리의 안보와 균형을 지켜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먹을거리’를 통해 우리사회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축산문제도 ‘축사’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밥상’의 문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누구와 나눌 것이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 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지 싶다.

홍성지역의 축산문제 역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공유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없어야한다. 오염실태에 대한 관찰, 측정, 조사연구가 있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일반인들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야 한다.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한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감시가 보장되어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맞닥트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문제의 진상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동안 축산 문제는 축산업계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였고, 학연 지연 친인척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눈감고 넘어가야하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 악취, 오염수 방류 같은 문제들이 그렇다.

홍성은 한 때 국내 최대의 밀집 축산 지역이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겠고, 마을은 축산 악취가 풍기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많이 참아왔지만 환경적 재앙은 이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가축 사육두수는 계속 늘고 있고, 시장에서 고기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주기적인 가축 질병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호황이다. 하루가 멀다하게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고기반찬. 단체 회식과 외식의 단골메뉴 삼겹살.

육식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성찰적 먹거리 교육이 필요하다.

#### <인용>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밥알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비춰주는 햇빛과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자랑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단순히 음식을 남기지 않게 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일상이 다른 사람의 노동과 생태계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리라.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겸손함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치킨이나 커피 한 잔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역순으로 관찰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적어보고 그들이 했을 고민을 상상해보는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비 결정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상호의존성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었다.

또한, 학습이 효과적이려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체험에 기반을 두고 삶과 연결해야 한다. 소비를 성찰하고 배움의 현장으로 포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일 수 있다. 태양광 발전기를 아파트에 설치하고 계량기에서 전기 생산량과 사용량을 확인하고 나니 아이들이 전기 사용에 더 민감해졌다거나, 태양계에 대한 수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상의 소비는 매 순간 교육의 현장으로 포착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뉴욕의 시민 시나 마테이켄(Sheena Matheiken)가 했던 '하나의 옷 프로젝트(uniform project)'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적이 있다. 이 재기발랄한 여성은 365일 동안 한 가지 옷(실제는 똑같은 옷 일곱 벌)을 입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접 만들거나 중고가게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장신구만을 이용해서 매일 다양한 패션을 연출하고,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에게 기부를 받아 고향의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학생들은 많은 영감을 받았다.

소비는 정치다. 정치적 소비, 일상의 정치

<인용>

사회학자 미첼레티(M. Micheletti)는 정치적 소비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정치적, 윤리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정치적 소비 대신 사회책임 소비, 윤리적 소비,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 소비자 시민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의미는 비슷하다.) 소비에 있어

서 개인적 이익과 손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 사회적 이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소비를 의미한다.

정치적 소비의 예는 다양하다. 건강만이 아니라 환경과 농민의 삶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선택하는 것, 노동력을 착취해 생산된 상품을 멀리하고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 납품업체에게 '갑질'하는 회사의 제품을 멀리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 등이다.

정치적 소비가 최근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선거에 투표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 정치 참여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필요에 부응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 방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소비가 중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생산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개별 국가의 규제 밖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수요의 변화를 통해 생산 영역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학자들이 보는 정치적 소비의 가치는 일단,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이나 대중 집회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일에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 정치 조직은 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요구된다. 반면 정치적 소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진입이나 탈퇴에도 부담이 적다. 시민들은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야 할 때보다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진입이 쉬운 정치 참여 형태라는 것이다. 문턱이 낮은 소비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정치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다른 정치 참여 행위에도 더 적극적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신뢰와 자신감을 학습하고 사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친환경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예로 들면 건강과 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동기화된 소비자가 환경 문제와 같은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치적 소비는 특정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를 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

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다. 1년에 한두 번 집회를 나가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소비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소비를 지속함으로써 특정한 가치가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협동조합으로 소비하라 -조직화되고 정치화 된 소비자의 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사람-지역-협력이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협동조합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요즘은 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졌고, 이미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 모델이 만들어졌다. 따라 하기만 해도 성공할 것 같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두 개 유형 이상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 소비의 10% 정도를 협동조합에서 써보자”운동처럼 구체적이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 내 동물복지 농장(친환경 축산)- 친환경 축산 가공 전문시설- 친환경 축산물 전시, 교육, 판매장으로 (소비자) 연결되는 친환경 축산물 먹을거리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과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가까워져야 믿을 수 있다.

<끝>

학교급식 식재료 중 축산물 사용 현황 : 2016년  
서산시 학교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

강마야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 학교급식 식재료 중 축산물 사용 현황 : 2016년 서산시 학교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 ○ 서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별 공급비중([표 1] 참고)

- 2016년 기준 서산시 학교별 식재료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약 1,041톤(약 5,503,758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가 약 890톤(약 5,773,648천 원), 중학교가 약 497톤(약 2,980,865천 원), 유치원·특수학교가 약 42톤(약 270,859천 원) 정도

[표 1] 서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별 공급비중

(단위 : 명, 톤, 천 원, %)

학교별	식수인원	환산중량	비중	금액	비중
유치원·특수학교	400	42.4	1.7	270,859	1.9
초등학교	11,988	890.7	36.0	5,773,648	39.7
중학교	5,257	497.0	20.1	2,980,865	20.5
고등학교	9,232	1,041.9	42.1	5,503,758	37.9
합계	26,887	2,472.0	100.0	14,529,131	100.0

### ○ 서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분류별 공급비중([표 2] 참고)

- 2016년 기준 서산시 분류별 식재료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가공품이 약 1,026톤(4,780백만 원, 농산물이 약 795톤(3,464백만 원), 축산물이 약 494톤(4,495백만 원) 순

[표 2] 서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분류별 공급비중

(단위 : 톤, 천 원, %)

분류	중량	비중	금액	비중
농산물	795.7	32.2	3,464,624	23.8
가공품	1,026.3	41.5	4,780,633	32.9
축산물	494.8	20.0	4,495,559	30.9
축산가공품	43.7	1.8	430,935	3.0
수산물	93.3	3.8	1,213,511	8.4
수산가공품	18.1	0.7	143,867	1.0
합계	2,472.0	100.0	14,529,131	100.0

- 1) 주 : 1. 본 원고는 강마야외(2017)의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계획 등 연구용역”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2016년 기준 NEIS에서 생성한 식재료 검수서(서산시 관내학교)를 분석한 결과임.

○ 서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별 공급현황([표 3] 참고)

- 2016년 기준 서산시 학교별 식재료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가공품의 경우 고등학교(47%), 중학교(39.4%)로 유치원·특수학교(36.5%), 초등학교(36.5%)보다 상대적으로 비율 높음.
- 축산물의 경우 유치원·특수학교(25.2%), 초등학교(24.0%)로 중학교(20.8%), 고등학교(16.1%)보다 상대적으로 비율 높음.
- 나머지 농산물, 축산가공, 수산물, 수산가공의 공급비율은 학교별로 큰 차이 없음.

[표 3] 서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별 공급현황

(단위 : 톤, 천 원, %)

구분	유치원·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산물	13.9 (32.9)	67,048 (24.8)	293.3 (32.9)	1,457,977 (25.3)	163.0 (32.8)	795,506 (26.7)	325.4 (31.2)	1,144,092 (20.8)
농산가공	15.5 (36.5)	85,574 (31.6)	324.6 (36.5)	1,783,454 (30.9)	196.0 (39.4)	967,898 (32.5)	490.0 (47.0)	1,943,705 (35.3)
축산물	10.7 (25.2)	87,260 (32.2)	213.6 (24.0)	1,814,653 (31.4)	103.2 (20.8)	832,126 (27.9)	167.2 (16.1)	1,761,518 (32.0)
축산가공	0.6 (1.5)	4,093 (1.5)	11.7 (1.3)	124,232 (2.2)	10.1 (2.1)	96,517 (3.2)	21.1 (2.0)	206,092 (3.7)
수산물	1.5 (3.6)	24,913 (9.2)	38.5 (4.3)	545,798 (9.5)	20.4 (4.1)	263,866 (8.9)	32.7 (3.1)	378,933 (6.9)
수산가공	0.1 (0.3)	1,969 (0.7)	8.7 (1.0)	47,532 (0.8)	4.0 (0.8)	24,950 (0.8)	5.2 (0.5)	69,415 (1.3)
총계	42.4 (100.0)	270,859 (100.0)	890.6 (100.0)	5,773,648 (100.0)	497.0 (100.0)	2,980,865 (100.0)	1,041.8 (100.0)	5,503,758 (100.0)

○ 서산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현황(상위 20개 품목)([표 4] 참고)

- 2016년 축산물 중 상위 20개 물품이 전체 품목 중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품목이 77.3% 차지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산물은 우유로 약 153톤(31.0%)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지가 약 33.8톤(6.9%), 전란생것이 약 33.1톤(6.7%) 순

[표 4] 서산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현황

(단위 : 톤, 천 원, %)

축산물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합계(전체 38개 물품)			494.7	100.0	4,495,559	100.0
상위 20개 물품 소계			472.5	95.5	4,250,450	94.5
상위 10개 품목 소계			381.9	77.3	2,830,380	63.0
1	우유	우유	153.3	31.0	381,671	8.5
2	돼지	전지	33.8	6.9	389,006	8.7
3	달걀	전란생것	33.1	6.7	114,140	2.5
4	닭	닭다리	33.0	6.7	295,312	6.6
5	돼지	후지	30.2	6.1	194,068	4.3
6	오리	오리고기	27.0	5.5	383,629	8.5
7	돼지	돈갈비	24.1	4.9	345,027	7.7
8	닭	살코기	17.4	3.5	161,731	3.6
9	닭	성계	14.9	3.0	83,687	1.9
10	소	우둔설도	14.6	3.0	482,104	10.7
11	소	돈등심	14.4	2.9	129,281	2.9
12	소	사태	12.2	2.5	396,070	8.8
13	닭	토막닭	11.8	2.4	62,709	1.4
14	돼지	돈잡뼈	11.0	2.2	49,878	1.1
15	닭	날개	9.7	2.0	90,564	2.0
16	돼지	돈사태	8.2	1.7	95,259	2.1
17	돼지	삼겹살	7.5	1.5	149,400	3.3
18	돼지	목살	5.1	1.0	95,795	2.1
19	소	갈비	5.1	1.0	162,027	3.6
20	소	양지	5.0	1.0	189,082	4.2

(재요약)

1	우유	153.3	31.0	381,671	8.5
2	돼지고기	136.9	27.7	1,467,480	32.6
3	닭고기	99.0	20.0	786,667	17.5
4	쇠고기	42.8	8.7	1,350,963	30.1
5	달걀	35.6	7.2	125,146	2.8
6	오리	27.0	5.5	383,629	8.5



○ 서산시 학교급식 축산가공품 공급현황(상위 20개 품목)([표 5] 참고)

- 축산물 중에서 우유가 153톤(31.0%)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가 136톤(27.7%), 닭고기가 99톤(20.0%), 쇠고기가 42톤(8.7%), 달걀이 35.6톤(7.2%), 오리가 27톤(5.5%)의 비중 차지
- 2016년 축산가공품 중 상위 20개 품목이 전체 품목 중 9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품목이 80.4% 차지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산가공품은 소시지로 8.6톤(19.7%)을 사용하고 있으며, 순대가 6.5톤(15.0%), 메추라기알이 5.4톤(12.4%)순

[표 5] 서산시 학교급식 축산가공품 공급현황

(단위 : 톤, 천 원, %)

축산가공품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합계 (전체 38개 품목)		43.7	100.0	430,935	100.0
상위 20개 품목 소계		41.8	96.0	412,016	95.7
상위 10개 품목 소계		35.1	80.4	317,977	73.8
1	소시지	8.6	19.7	76,967	17.9
2	순대	6.5	15.0	39,455	9.2
3	메추라기알삶은것	5.4	12.4	37,505	8.7
4	본레스햄	3.1	7.2	32,616	7.6
5	햄	3.0	7.0	36,221	8.4
6	닭꼬치	2.3	5.4	25,850	6.0
7	런천미트햄	1.9	4.5	22,120	5.1
8	베이컨	1.4	3.3	28,643	6.6
9	삶은달걀(전란)	1.4	3.2	9,398	2.2
10	돈커틀렛	1.1	2.7	9,197	2.1
11	닭다리구운것	1.1	2.6	4,571	1.1
12	슬라이스햄	0.9	2.3	12,163	2.8
13	구운갈비	0.9	2.3	23,551	5.5
14	수제소시지	0.8	1.9	13,400	3.1
15	삶은족발	0.6	1.6	15,413	3.6
16	꼬치고기	0.5	1.3	7,638	1.8
17	닭튀김	0.5	1.3	6,003	1.4
18	살코기튀긴것	0.4	0.9	4,990	1.2
19	냉동산적	0.3	0.7	3,179	0.7
20	닭불고기햄	0.3	0.7	3,127	0.7

사람\_동물, 마을\_농장, 이제는 같이 살자!

---

주관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녹취 : 충남연구원 도움

---

